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일동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지혜의 샘터
〈2018-7호〉

발행처 : 일동중학교 도서관
편집인 : 도서부
발행주기 : 월 간
발행일 : 2018.11.0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9 홈페이지:www.ildong.ms.kr Tel.532-3813

도서관에서 알립니다.

- **신간도서**가 들어왔어요. 와서 둘러보세요~~
- 학생증(대출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꼭 챙겨서 오세요.
- 도서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주세요.

☒ 도서대출 BEST 5!

순위	서명
1	마법사를 위한 동화
2	달려라 메일
3	나는 이 집 아이
4	악녀의 정의
5	카마수트라

☒ 다독왕은?

순위	학년 반	이름	대출권수
1	3-2	구OO	74
2	2-2	조OO	27
3	3-3	유OO	19
4	3-4	이OO	17
5	2-3	김OO	16

☒ 다독반은?

순위	학년 반	대출수
1	3-2	84
2	2-3	45
3	2-2	38
4	3-3	36
5	3-4	35

(기간: 2017. 10. 01 ~ 11. 31)

★ 다독왕 5명은 11월 한 달 간
대출권수를 3권으로 늘려드립니다.

☒ 도서관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30분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전교행사일 등

☞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권수 : 1인 2권
- 대출 기간 : 7일이며,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 참고도서,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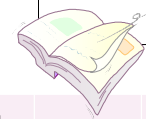
2018년 2학기 독후감 대회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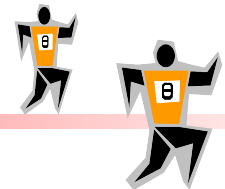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비고
103	하OO	202	윤OO	301	박OO	최우수
101	윤OO	203	이OO	302	이OO	우수
101	한OO	201	심OO	303	유OO	우수
102	김OO	204	전OO	304	박OO	장려
		202	박OO	303	김OO	장려



2018년 독서마라톤 대회 수상



학년 반	이름	순위	학번	이름	순위	학번	이름	순위
101	이OO	1	201	박OO	1	302	구OO	1
101	주OO	2	204	유OO	2	302	이OO	2
103	하OO	2	202	조OO	2	301	임OO	3
103	김OO	4	203	이OO	3	301	하OO	3
			204	최OO	3	302	정OO	3



『행복한 책 읽기』 행사

2018학년도 마지막 도서관 행사!!

11월 12일(월) ~ 16일(금)까지!

11월 12일 ~ 16일	북 디자이너 (스크래치 종이활용)	스크래치 종이를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손으로 책표지를 만들어 보아요. 완성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책 빙고	주제별로 도서관 대출하여 읽고 확인 도장을 받아 1빙고를 완성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소진 시 행사 종료!!
	추천도서 송모라기	선생님들께서 직접 추천한 책에 응모하세요. 바로 그 책을 추천하여 선물로 드립니다.
	독서 초성퀴즈	책 제목 초성으로 도서 제목을 맞추면 퀵 돌릴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퀵돌을 돌려 나온 상품 중점!!
	독서퍼즐	퍼즐 속에 숨겨진 책 제목 10개를 찾아 종그라미치고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4일. 점심시간	압화 책갈피 만들기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미려 신청해 주세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최근 광고카피와 같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형 제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교보문고가 조사한 결과 최근 책제목으로 '싶어', '있어', '했다'와 같은 문장형 제목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주인 교보문고 10월 3주차(10월 17일~23일) 종합 베스트셀러 20위를 살펴보면 2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 6종이 문장형 제목의 책이다. 2017년 10월 월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20위권에 4종, 2016년 10월에 3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베스트셀러담당은 "예전 같으면 책 광고에 쓰일만한 문구들이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며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문장형 제목이 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약하기 때문"이라며 문장형 제목이 인기인 이유를 밝혔다.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를 낸 비즈니스 북스의 송은경 편집자는 "제목이 웬만큼 길더라도 독자가 직관적으로 자신의 얘기인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라면 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책 제목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등 문장형 제목의 베스트셀러를 다수 펴낸 21세기 북스에 재직중인 한 편집자는 "책 제목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며 "독자가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 제목을 짓는 데는 명사로 끝나는 제목보다 문장으로 끝나는 제목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